

곡성세계장미축제, 더 화려하게 더 향기롭게 3년 만에 부활



국내 최고의 장미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가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3년 만에 더욱 화려하게 펼쳐진다. 곡성세계장미축제는 행안부 결산 기준 전국 지역축제 흑자 1위에 오를 정도로 만족도와 화

제성이 높은 축제로 손꼽힌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개최를 하지 못하다 올해부터 다시 관람객을 맞이하게 됐다. 3년만의 부활인 만큼 올해 축제는 모든 것이 파격적이다. 일단 축제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 17일간 장미홀릭 기대감 상승 '장미무도회 콘셉트' 유럽 온 듯한 볼거리·즐길거리 가득

17일로 대폭 늘어났다. 그만큼 보고 즐길 것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행사장 역시 엄청난 규모로 커졌다. 4만 평방 미터였던 정미정원이 확장 공사를 통해 7만 5천 평방미터로 2배 가량 넓어진 것이다. 중국, 로마, 그리스, 프랑스, 영국 등 각 나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세계 정원을 새롭게 조성했다. 장미 속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완벽한 장미 세상을 구현했다.

축제는 '골든로즈 시즌2! 장미 무도회'라는 주제와 콘셉트는 진행된다. 코로나 이전에 장미축제 주제였던 '골든로즈'를 이어받아 장미축제의 브랜드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미무도회'라는 화려함을 새롭게 추가했다. 수억만송이 장미의 향연이 펼쳐지는 장미정원으로 온 국민을 초대한다는 뜻이다. 쾌적하고 편안

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축제장 곳곳에는 피크닉 존, 버스킹 존, 이벤트 존, 푸드 존 등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무대에서는 축제 기간 내내 다양한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5월 21일 개막일에는 가수 임창정과 육중완 밴드의 특별 공연이 19시부터 진행된다. 또한 17시에는 개막을 알리는 미니 뮤지컬 '달랑루즈'에 이어 팝 가수 비온세와 브루노마스의 곡을 리메이크한 '로즈 갈라콘서트'까지 유럽 무도회에 온 듯한 공연이 펼쳐진다.

주말 저녁은 볼거리가 더욱 풍성하다. 5월 22일 18시에는 6070세대의 흥을 돋울 장미 트롯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5월 28일과 6월 4일 18시에는 MZ세대의 유희 댄스팀 '미스몰리'가 EDM에 맞춰 파워풀하고 힙한 공연을 선보인다. 29일 18시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

리스트 김범수와 함께 포레스텔라, 황휘현, 여령교이 출연하는 장미 소울 콘서트로 축제의 열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번 축제의 꽃인 '로즈 왈츠' 공연은 중앙무대에서 6월 3일과 4일 14시부터 펼쳐진다. 장미무도회라는 콘셉트에 맞춰 준비한 메인 이벤트다. 국가 공인 스포츠댄스 선수들의 화려한 댄스와 왈츠를 눈앞에서 즐길 수 있다. 방문객들은 별도 부스에서 무료로 빌려주는 연미복(상의)과 드레스를 입고 평생 잊지 못할 인생샷을 남길 수도 있다. 축제 마지막 날인 6월 6일 18시에는 국악 경연 프로그램 우승자 김산옥과 함께 흥주, 조주환, 퀸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외에도 매일 낮 11시에는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예술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15시부터 17시까지는 포크, 일렉, 성악, 댄스, 트롯, 버스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계속해서 펼쳐진다. 곡성세계장미축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문화체육과(061-360-847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구례군, 봄꽃으로 관광업계 활력의 꽃 피우다

산수유꽃 상춘객 전년대비 8.0%증가...벚꽃 상춘객 전년대비 16.5% 증가



구례군에는 봄의 전령사로 알려진 산수유꽃을 시작으로 관광업계가 활력의 꽃을 피우고 있다.

구례군에 따르면 산수유꽃 개화기간 상춘객은 전년대비 8.0% 증가, 벚꽃은 16.5% 증가, 수선화가 피어있는 지리산치즈랜드에는 324%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야생화가 자생하는 지리산에는 한반도 자생식물의 30%인 1,526종이 서식한다. 그중에서 구례군에는 전국 야생화 생산량의 15.6%를 차지할 만큼 야생화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봄의 전령사로서 남도의 봄 소식을 알리는 산수유꽃이 3월초에 산동면 일원에 장관을 이룬다. 전국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수유꽃은 1달여 동안 꽃을 피운다.

지리산치즈랜드는 3월말부터 푸른 초지, 호수가 조화를 이루며 수선화 꽃이 피기 시작한다. 일명 '한국의 스위스'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인스타그램을 빛낸 올해의 관광지 4선에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4월초에는 섬진강을 따라 조성된 300리 벚

꽃이 터널이 이루어 장관을 이룬다. 특히, 이 길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길로 지리산과 섬진강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다. 벚꽃이 질 무렵에 섬진강변에는 야생갯꽃과 유채꽃이 섬진강대숲길과 어우러지며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전국에서 야생화가 가장 많이 자생하고 있는 지리산에서는 4월부터 8월까지 다양한 야생화를 볼 수 있다.

지리산 화엄사에는 3월말~4월초 만개하는 홍매화로 유명하다. 화엄사 매화는 조선 숙종때 각황전을 중건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계파산사가 심었다고 전해지며 수령은 300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작년보다 홍매화 들메와 사진콘테스트를 추진하여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또한, 이시기에 천연기념물 제38호인 화엄사 울벚나무의 벚꽃을 함께 볼 수 있다.

전남에서 유일한 공립수목원인 구례수목원에는 1,148종의 13만 그루의 식물이 있으며, 4월부터 야생화 꽃으로 웃을 갈아 입는다.

4월에는 목련, 조팝나무 등 20여종의 야생화를 시작으로 철쭉, 원추리까지 8월까지 핑지에서부터 노고단 정상부까지 시기별로 꽃을 피운다.

특히, 6월에는 100만송이 수국길이 장관을 이룬다. 약 2km의 테마수국은 아나벨수국, 떡갈잎 수국, 미국수국, 산수국, 목수국 등 길, 100여종의 수국이 식재되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청각장애인과 함께한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학교

첫 차시 체험 호응... 어르신·다문화가정·외국인유학생 등 총 7회 운영



나주시는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학교'에서 지난 14일 청각장애인을 시작으로 7회 차에 걸쳐 '공감! 나주향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감! 나주향교는 '유복업 나주향교 둘러보며 이야기 듣기', '다례 및 전통예절 배우기', '내 손으로 인절미 만들기', '떡 매치기' 등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첫 차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각장애인 20여명은 수어통역사와 함께 전통의 맛과 멋을 향유하는 다례체험을 시작으로 향교 내부 투어를 통해 나주향교의 역사, 문화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후에는 직접 떡매를 치고 인절미를 직접 만들어 맛보며 고즈넉한 향교에서 화기에애한 시간을 가졌다.

공감! 나주향교는 발달장애인, 65세 이상 노년층,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화순군, 동면 구수마을에서 첫 모내기

동면 구수마을에서 올해 첫 모내기가 시작됐다.

화순군은 천농농협과 동면·사평면 11농가가 조기재배를 계약해 지난 19일 조생종 조명1호로 첫 모내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명1호는 밥맛이 우수하고 쓰러짐과 수

발에 강한 조생종 품종으로,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 보급했다.

군은 추석 전 햅쌀 시장을 겨냥해 동면·사평면 일원 재배지 13ha에서 8월 말부터 수확, 출하를 계획하고 있다.

벼 조기재배로 태풍과 병해충에 의한 피

해 감소, 농작업 시기 분산에 따른 농가 경영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8월 말까지 농가에 현장 기술 지원을 확대, 강화해 벼 조기재배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군 쌀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신기술 보급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남 포스코A&C